

여수산업단지, 발암위험 은폐 들통!

조사결과 2006년까지 미공개 결정 ... 주민 철수때까지 그냥 기다려?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지표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구를 수행한 기관과 환경부는 연구결과를 2006년까지 <대외비>로 분류해오고 있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월15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지정기관인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보고서가 2006년 2월까지 <대외비>로 분류돼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사망신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자료, 국립암센터 중앙 암 등록 자료, 지역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등을 이용해 산출된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보고서에는 2000년 여수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암 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144.2명으로 전국 평균 122.1명에 비해 12%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여수산단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기관지과민성 검사에서는 산업단지 내 검사 양성률이 33.9%로 대조지역인 전북 남원의 20.2%보다 13.7%p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알레르기 관련 피부반응검사에서는 여수산단 내 검사 양성률이 22.7%로 대조지역의 12.4%보다 10.3%p 높았다. 특히, 집먼지진드기 항원에 대한 검사 양성률이 대조지역이 비해 크게 높았으며,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주거환경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여수산단 주변마을 1791세대에 대한 이주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환경부 등 소관 부처가 건강역학조사를 은폐하고 주민들이 이주할 때까지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결과를 은폐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 사과하는 한편, 발암물질 배출규제를 실시할 촉구했다.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환경오염과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는 주민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과제가 완료된 후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보해 최종 발표기로 2000년 연구수행 당시 협의된 사항”이라며 연구결과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특히, 여수지역의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고 표현된 부분은 통계청 자료만을 사용해 비교한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정확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환경부 선도기술개발사업(G-7)으로 수행된 <대기오염 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연구에 따르면, 벤젠 등 19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로 인한 발암 위험도 측정 결과 여천공단에서 1만명 가운데 23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여수산단의 대기오염과 발암 위험도는 누차 지적돼 온 사항이다.

사진)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



결국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한 정부는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따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18>